



## 시선

## 사설

## 교육은 인질이 될 수 없다

도로사용료를 둘러싼 동대문구청과 학교의 해묵은 공방이 SPACE21 신축 건물을 둘러싸고 재차 전화되는 모양새다. 동대문구청은 지난달 신축 행복기숙사 사용승인 신청 당시 ‘교통영향평가’를 문제 삼았다.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의 설치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을 검토해 적절한 교통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의 골자다.

동대문구청의 요구는 말이 되지 않는다. SPACE21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도 경희대로는 존재했고 지금도 변함없다. 기숙사에 입사한 천여 명의 학생이 모두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강의실과 연구실로 사용될 신축 단과대학동은 거대 쇼핑몰처럼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시설도 아니다.

문제는 서울캠퍸스 정문으로 이어지는 경희대로가 우리학교의 사유지라는 데서 발생한다. 2012년 경희학원은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동대문구가 그간 무단 사용해 온 학교 사유지의 사용료를 낼 것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학교의 손을 들어줬고 동대문구청은 학교에 14 억 원의 부당이득금과 매년 1억 4천만 원의 도로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액수가 액수이니만큼 동대문구청은 사용료의 감면이나 면제를 요구해왔다. 결국 이번에 교통영향평가를 빌미로 신축 행복기숙사와 단과대학동 건물에 제동을 걸며 이를 다시금 요구하는 것이다. 입주가 진행된 행복기숙사 역시 임시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뿐이다. 동대문구청은 단과대학동에 대해선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은 펴며 경희대가 궁극적으로 도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구청의 행위는 교육을 인질 삼는 것이다. 학생들의 주거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자금으로 지어진 기숙사의 사용을 막아서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하기 위한 신축 단과대학 건물 사용승인을 막을 조짐을 보이는 것은 구청의 이익을 위해 학생을 불모로 삼는 것이다.

심지어 신축 건물과 도로사용료 문제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당장 개강과 입주를 앞둔 학생들이 며칠을 불안에 떨어야 했고 나아진 환경에서 교육받길 기대했던 구성원들은 몇 번째인지도 모를 ‘다음 학기’를 기약하게 됐다. 이는 동대문구청의 폭거다.

기실 그들이 하는 짓은 불법에 가깝다. 행정기관이 행정이행조건으로 실질적 관련이 없는 사건을 가져오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으로 금지된 행위다. 행정가들이 모인 구청이라는 조직이 이런 기본적 법률도 모를 리 없다.

그래서 경희대로를 둘러싼 법적 공방 중, 학교는 구청에 협의체 구성을 먼저 제안한 적이 있다. 국유지인 경희초등학교 부지와 사유지인 경희대로를 맞바꾸는 ‘대토’ 방식 등 학교는 이미 선택지를 내밀었다. 이를 거절하며 자총수를 둔 것은 동대문구청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구청이 지불해야 할 원금과 이자는 늘어나고 있다. 필요한 것은 동대문구청의 각성뿐이다. 동대문구청은 교육을 인질로 잡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도로사용료를 둘러싼 논쟁은 신축 건물과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후 건설적 논의를 펼쳐나가면 될 일이다. 우리학교는 동대문구와 60여년을 함께 해 왔고 앞으로도 함께 해야 할 귀중한 동반자임을 지각하고 길 촉구한다.

## 모든 학생 AWS 무료로 쓴다

## IT관련 창업 준비에 도움

미디어 여론동향 2017. 8. 21 ~ 9. 3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우리학교가 ‘아마존 웹 서비스(AWS)’에 가입해 학생들이 매년 100달러 상당의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무료제공 된다/대학주보 온라인, 2017.8.25](#)) 학교 웹메일 인증을 통해 AWS에 가입하면 전공에 상관없이 아마존이 제공하는 40여 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비용을 내는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만 연결되면 마음대로 사용 가능한 고성능 컴퓨터가 하나씩 생긴 셈이다. 협력을 주도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사업단 조진성 단장은 “많은 IT 스타트업 기업이 초기 금전적 비용을 클라우드 서

## 만평

##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피해자와 가해자?

무식한 것들은...  
청소나 하지!



## 절대적 강자와 약자는 없다



이소진 기자

## 이 주의 주제 - 피해자와 가해자

##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박찬우 감독의 ‘복수 3부작’ 첫 번째 작품에 해당하는 ‘복수는 나의 것’을 IPTV ‘이 달의 무료 영화’ 텁에서 어찌다 만났다. 감독과 그의 이후 작품에 비해 덜 유명한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엔 헛구역질이 나왔다. 장기적 출, 전기 고문 등 구역질이 나오는 장면을 지나 영화의 대단원에선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영화는 선과 악의 이분법을 비웃듯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다. 러닝타임 내내 믿고 있던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고한 관계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예술은 현실을 반영한다 했던가. 취재를 하며 마음 한 커에 있던 의심들은 조금씩 싹을 터워 갔다. ‘절대적 피해자와 절대적 가해자는 존재하는가’.

처음 국제캠퍼스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지부장을 만나면서 반장과 소장의 갑질에 분노했다. 현장 지휘가 안 될 때마다 일삼는 폭언, 차르겠다는 협박. “무식한 것들은 청소나 하지!”와 같은 참을 수 없는 막말들. 반장과 소장의 폭언과 막말 때문에 노조를 만들었다는 그들이 정말 ‘피해자’인 줄 알았다.

그러나 취재과정에서 만난 용역회사 소장과 반장은 강력한 가해자도 아니었고 절대악도 아니었다. “회사에서 제 동의도 없이 합의서를 썼다구요.

제 말도 들어보지 않고 그냥” 회사에서 이들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내린 것이다. 그들도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 이들이 해왔던 행위는 분명 잘못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같은 노동자인데’라는 생각이 스쳤다.

후에는 청소를 하시는 다른 여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신경정신과 다니면서 약까지 먹고 있다니까. 초등학교도 아니고, 이런 왕따를 당해본 적이 없어.” 같은 단과대학에서 일하는 다른 여사님들이 이 분을 왕따시키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견딜 수 없던 나머지 한 마디 했더니 철문에 밀어 타박상까지 입었단다. 어떤 말을 해도 꼬투리를 잡는 분위기에서 함께 쉬지도 못해 참고해서 혼자 박스를 깔고 쉬다고 했다. ‘약자는 선할 것이다’는 믿음도 무너져 내렸다. 약자일 것 같았던 청소노동자들 안에서도 선악과 권력 관계는 존재했다.

괴로웠다. 매번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었다. 영원하게만 생각했던 가해자도 피해자가 되고,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피해자도 가해자가 됐다. 강자도 더 강한 자 앞에서는 약자가 되고, 약자는 더 약한 자 앞에서 강자가 되었다. 이 먹이사슬 같은 공간에서, 절대적 강자와 절대적 약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통점은 있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 약자로 분류되는 자들이었다. 연로를 가지지 못하고 물분을 쌓아왔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쌓인 물분이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되면 박찬우 감독의 영화가 된다. 어차피 같은 약자다. 약자끼리 조금만 더 보듬어주며 사는 방법은 없을까.

비스로 극복하는 만큼, 관심 있는 학생들의 비용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세 명의 12학번 동문이 글로벌 트리스트 기금으로

총 3백만 원을 기부했다.([12학번 삼총사, ‘글로벌 트리스트’ 기부/대학 홈페이지 Focus, 2017.8.21](#)) 네오

르네상스전형 합격생 소모임인 ‘네오’에서 활동하며

친해진 김주영(의상학 2012), 김환진, 김수완(경영학

2012) 동문은 글로벌 트리스트 기금으로 각각 백만 원을 기부했다. 네오르네상스전형을 통해 자신들의 가능

성을 발견하고 이를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준 경희

대학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이들은 기부를 결심

했다. 이들은 재학 중에도 소모임 ‘네오’ 활동을 통해

수시전형을 준비하는 지방소재 고등학생을 돋는 등 다

양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준

비 요령 등을 제시한 책 <학종전 전성시대(네오씽크,

2014)>를 발간하기도 했다. 수익금은 전액 성가복지병

원 등에 기부했다. 김수완 동문은 “경희 교육의 연장

선상에서 기부가 이뤄졌다”라며 “떨어서 나중에 해야

지’라는 생각보다 실천이 중요하고 그 실천을 경희대

에서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나눔이 장기적

으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으며 지속적으로 기부할 의향을 밝혔다.

강동경희대 한방병원은 효모발효물질과 한방 생약

성분을 이용한 고기능성 한방화장품 ‘회원’을 개발했

다.([강동경희대 한방병원, 저자극 고기능성 한방화장](#)

[품 개발/국민일보 외, 2017.8.22](#)) ‘회원’은 경희대 브랜

드를 인증해 출시한 유일한 화장품으로 화학성분을 배

제해 피부자극을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높인 것이 특징

이다. 또한 임상시험을 통해 저자극성, 피부진정 효능,

피부보습효능, 탄력 개선 효능 등을 인정받았다.

경희대 산학협력단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이 정보통신기술 융합 기술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지원

협약을 맺었다.([한국무역정보통신, 경희대와 MOU 체](#)

[결/연합뉴스 외, 2017.8.23](#)) 협약은 중소기업과 스타트

업 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수출을 보다 용이하고 간편하

게 진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무역여건을 개선해나가는

데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두 기관은 상호 긴밀한

협력유지와 함께 정보통신기술 융합기술과 인재활용

을 통해 지능형 디지털 무역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 고초를 겪으신 모든

## 마봉춘 선배님들께

## 세시봉

이수형 (편집장)



마봉춘 선배님께.

힘드시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지난 구간 많이 힘드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나마도 이 글이 도착할 월요일엔 참고 혹은 스케이트장 출근을 뛰쳐나오신다니 차라리 다행입니다. 의욕 넘치던 당신에겐 펜을 놓는 것이 가장 고역인 일이었겠지요. 파업이 보통 일은 아니지만 심지 굳은 당신이라면 잘 이겨내실 줄로 압니다.

김장경이란 이름의 나쁜 친구를 사귀었을 뿐이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오해하게 했던 일들이 그 친구의 농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편지는 사과문에 가깝습니다. 당신 또한 피해자라는 이야기는 최근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정작 무관심 속에 외로움을 겪힐 때 당신 옆에 없었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동안 당신을 피하기만 급급했습니다. 내심 TV를 켜면 당신이 아닌 좋은 선배들이 많으니 당신 따윈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일 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당신을 망친 그 친구가 아니라 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끔 스칩니다. (공범자들)이 흥행하고, 기자들의 절절한 직장 이야기들이 화제가 되고 나서야 당신을 떠올림에 부끄럽습니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지난달 둘째고 청계광장 파티에 갔습니다. 한영에 씨가 노래를 참 멋있게 부르시더군요.

또, 다행히도 당신 주변에 이미 사람이 많더군요.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웠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안 좋은 소문이 끊이질 않던 당신인데 대단한 일입니다. 당시 어렸던 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만큼 당신이 우리와 떨어지기 전, 믿음직한 사람이었다는 뜻일 겁니다. 아, 그날 나눠주신 사과 주스 잘 먹었습니다.

당신에겐 실례되는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상황이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일을 당한 옆 건물 친구들은 동료들의 축하 속에 제자리로 돌아왔다죠.

그중 한 분은 사장님의 꿈이시라 더니 어렵게 되신 모양입니다. 당신이 원망하고 있는 그 친구분에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들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니, 당신이 돌아올 날도 얼마 안 남았다 싶습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을 추억하는 사람이 가장 많을 테니까요.

처음이 아니라곤 하지만, 쉬시는 동안 힘드실 겁니다. 수년간 참고에, 혹은 스케이트장에 다리가 묶여있던 당신에겐 쉰다는 표현이 지겹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군요. 파업 말입니다. 이번엔 함께하겠습니다. 그간 당신에게 가지 못하도록 설득해 놓은 지인들에게, 이번엔 당신의 어려움을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라면세요. 파업으로 원하시는 일 이루시고, 9시에 만납시다. 거리가 아닌, 우리 집 안방에서 만납시다. 꼭 만나서 당신이 왕년에 얼마나 대단 했는지 보여주세요. 공연방송 정상화를 응원합니다.

## 알림

## 대학주보에

##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좌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좌측상단 기사제보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김해경 | 편집장 이수형



### ▶면에서 이어짐

용역업체인 두레시닝은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듯했다. “직위해제가 된 건 맞지만 임의 사직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 두레시닝 인사담당자는 직위 해제 후 소장과 반장이 출근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다. 더불어 노조와 두레시닝은 합의서를 통해 이들의 ‘사직처리’를 명시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 합의사항은 이행되지 않았다.

### 처음이 아니었던 고발

고발은 처음이 아니었다. 노조는 2016년에도 ‘부당노동행위’로 똑같은 관리자를, 똑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심했었죠.” 국제캠 청소노동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잘리고 싶나”라는 협박은 심심하면 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정도 말은 신경도 안 써. 뭐 ‘무식한 것들이 청소나 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나’ 같은 폭언이나 욕설을 들었었죠. 노조 생기고 나서는 쉽게 자르지는 못하는데, 청소를 다 한 걸 커플레이션을 건드거나 하는 방식으로 괴롭혔어요. 우리는 뭐, 읊이었지.”

당시엔 폭언의 강도가 지금보다 심했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 반장에게 ‘소장의 부당지시에 대해 감독의 역할로 중재·거부 등 최선을 다하겠다’,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느꼈던 부분에 대하여 사과를 하겠다’는 각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학교가 고발 건을 몰랐던 것은 아니다. 국제캠퍼스 관리팀 정태일 계장은 “고발 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학교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끝내 말했다.

“이런 일이 생긴다면 본사(용역업체)를 불러 권고를 하기는 합니다만, 사실 왜 학교가 연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는

이런 일에 관련이 되면 안 됩니다. 만약 개입을 한다면 인사권 개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용역회사에 다 맡겼으니까요.”

2016년도 고발 건에 대해서는 반장과 노조가 오해가 있었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각서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로 일축했다. 두 번째 고발 건에 대해서는 “학교 입장에서는 회가 나는 일이었다”고 답했다.

“그렇게 갑자기 노사합의서를 써서 반장과 소장을 내쫓게 되면 현장은 어떻게 합니까. 노조를 만나 협의할 기회는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노동자도 용역업체 직원이고, 관리자들도 용역업체 직원인데 용역업체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 지점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관리자의 폭언에 대한 문제는 학교에 공식적으로 제기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만약 폭언이 있었다면, 학교에서 바로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2013년도에 한 번, 폭언을 했다고 들려왔을 때는 바로 본사를 불러 주의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는 들려온 게 없구요. 알고도 모른척했다.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소장과 반장 또한 고발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소장은 “저도 인간인데 어떻게 다른 분들에게 폭언을 하겠나”며 “오히려(청소노동자 분들에게) 야유회, 송년회 등 행사를 기획하며 잘해드리려고 했다. 이런 진심이 왜곡되어 사람으로서 화가 나 ‘욕을 하고 싶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폭언 문제에 대해 부인했다. 반장 또한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며 “일을 시킬 때도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려고 노력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서울캠 청소노동자들이 자회사 직고용을 이루는 동안 국제캠에서 만난 청소노동자들은 계속 말했다. ‘사람 대접’을 받게 해달라고. 임금도, 노동 환경도 아니었다. 최소한의 권리를 찾기 위한 싸움은 여전하다.

# ‘미래창조스쿨’, ‘미래혁신원’으로 명칭 바꿔 ‘교육인증’ 불투명… 오픈랩은 LINC+ 연계운영

## ‘미래혁신원’ 출범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지난해 8월 외부 언론을 통해 먼저 공개되며 학생과 교수들의 반발을 불렀던 ‘미래창조스쿨’이 ‘미래혁신원’이라는 부서로 명칭을 변경했다.

21세기 대학혁신위원회의 계획대로라면 미래창조스쿨은 이미 지난해 시행됐어야 하지만 시작부터 학내 소통 부족의 대명사로 자리하며 한 해 동안 표류했다. 2016년 2학기 오픈랩 개관, 2017년 3월 교육프로그램 진행과 같은 계획들도 무산됐다. 미래창조스쿨을 이어받은 미래혁신원은 “구성원과의 소통 없는 시작은 오히려 독약”이라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 ‘미창스’, 미래혁신원으로 학생 취업·창업 지원

‘미래혁신원’은 학생지원처와 취업진로지원처가 통합됐으며 현행 17개 팀에서 12개 팀으로 개편됐다. 이와 동시에 학생들의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일을 맡는다. 원장을 맡은 공공대학원 김문호 교수는 “현재 학생들을 지원하는 부서들이 허어져 있다”며 “일자리로 이 부서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

으로 다시 조직하여 학생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정책원 권오병 원장은 “미래혁신원은 부서 개편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어떻게 도와줄지 고민하며,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혁신원이 중점을 두는 것은 두 가지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라이프 플래닝’과 사회진출을 도와주는 ‘헤드쿼터’다. 개교 65주년을 맞아 대학이 갈 길을 구성원에게 물은 ‘미래대학리포트 2015’에서 학생들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학교가 다양한 사회 진출에 대한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미래창조스쿨이기에 이를 이어받은 미래혁신원 또한 큰 틀에서는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대학이 취업사관학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 미래혁신원 김문호 원장은 “전공 수업에서 배운 전공지식과 후마니티스 칼리지에서 받은 인문 교육이 어떻게 자신의 삶과 연결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며 “취업 만이 아니라 대학을 다닐 때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준비를 도와주는 것이 미래혁신원의 목표다”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미래창조스쿨의 핵심이었던 ‘교육인증 프로그램’의 시행은 불투명하다. 교육인증프로그램은 미래창조스쿨에서 지정한 교과를 일정 학점 이수하면 졸업 시 미래

창조스쿨 인증 문구를 졸업장에 기입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미래정책원 권오병 원장은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인증이 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증을 위한 커리큘럼 개편은 없고, 현행 취업스쿨 역시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효과 의문 ‘인증’은 폐지 구성원 의견 물을 것

미래창조스쿨의 주요 계획 중 하나였던 ‘오픈랩’은 미래혁신원이 이어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오픈랩은 올해 4월 선정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LINC+)’과 연계하여 운영된다. 청년 창업과 산학협력이라는 LINC+의 목표는 미래혁신원의 학생 취업·창업 지원 기조와 맞아 떨어진다.

서울캠퍼스는 신죽 행복기숙사 1층, 국제캠퍼스는 학생회관 1층 취업진로지원처를 오픈랩 공간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공간 디자인 중에 있다.

미래혁신원 김문호 원장은 “학교가 좋다고 생각하여 준비했더라도 학생들의 참여나 관심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드는 과정에서 최대한 학생들과 관련 전문가, 교수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안내

- 신청대상 :** 2017-2학기 국가장학금 1차 미신청 재입학생, 편입생, 복학생  
• 재학생은 1학기 신청이 원칙이나, 1학기 신청이 불친 재학생은 재학중 1회에 한해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 가능  
※ 2차에 신청한 재학생은 심사단계에서 탈락(사유 : 신청기간 미준수)  
→ 재심사 후 국가장학금 지원

- 신청 및 서류제출·기구원동의 기간**
  - 신청 : 2017. 8. 23.(수) ~ 2017. 9. 6.(수)
  - 서류제출 및 기구원동의 : 2017. 8. 23.(수) ~ 2017. 9. 12.(화)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신청

### 2017-2학기 복학생 우정장학 신청안내

- 목적 :** 저소득층 학생의 안정적 학업환경 조성

- 신청 대상 :** 2017-2학기 복학생 중
  - 2017-2학기 국가장학금 1,2차 신청자
  - 2017-2학기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자
  - \* 국가장학금 수혜여부와 무관
  - 최종 등록학기 우정장학금 미수혜자
  - 2017-2학기 정규학기 재학생

- 신청자격**
  - 직전학기 12학점(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이수
  - 직전학기 평균평점(원성적) 2.0 이상
  - \* 단, 직전학기 1교환학기인 경우 교환학기 성적은 9학점 이상 Pass 하였을 것

- 신청기간 :** 2017. 9. 1.(금) ~ 9. 21.(목)[3주간]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융자신청 → 우정(가계고관)장학금 신청  
※ 온라인 신청만 가능, 별도 서류제출 없음  
※ 신청서 내 기재사항 작성 필수

### ● 지급기준

소득분위	지급기준
0~2	등록금전액 및 월
3	2,000,000원
4	1,400,000원
5	1,200,000원
6	900,000원
7~8	400,000원

### ● 지급일정 :

- 등록금 대출자 : 장학팀에서 대출금 직접 상환 처리
- 등록금 미대출자 :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계좌로 이체처리

### ● 우정장학 지원제외자

- 2017-2학기 성적이 있는 재학생
- 최종 등록학기 전액 징수수혜자
  - \* 국가근로장학, 학업장려, 기숙사비, 생활비는 예외
- 2017-2학기 휴학자
- 2017-2학기 출업유예자(정규학기 초과자)
- 기타 정학규정 징학금 지급제한자

### ● 문의 :

학생지원처 장학팀(02-961-0045~0046)

### 2017-2학기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신청안내

- 목적 :** 저소득층 학생의 안정적 학업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비 지원

- 신청자격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직전학기 12학점(의약학계열 15학점) 이상 이수
  - 직전학기 평균평점(원성적) 2.0 이상

### ● 정규학기 재학생

- 2017-2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1분위인 학생
- \* 단, 등록복학생이 2017-2학기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최종등록학기 소득분위 인정

### ● 신청기간 :

2017. 9. 1.(금) 09:00 ~ 9. 21.(목) 24:00 [3주간]

###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장학/융자신청 →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신청 → 2017-2학기 학습계획서 작성(띄어쓰기 포함 2000자 이내) 및 저장

\* 신청완료 후 종합정보시스템 → 개인정보변경 → 개인계좌 등록

### ● 선별 및 지급일정

- 신청자 자격검토 및 장학사정 : 2017. 9. 22.(금) ~ 10. 20.(금)
- 선별결과 공지 : 2017. 10. 23.(월) 18:00 이후 “종합정보시스템-장학조회” 개별 확인
- 장학금 지급 : 2017. 10. 27.(금) 예정

### ● 지급액 :

600,000원/월 150,000원 × 4개월(9, 10, 11, 12월)(등록금 초과지급 가능)

### ● 지급일 :

매월 25일 전후(9월분은 10월에 소급하여 지급)

\*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본인계좌로 이체지급

### ● 기타 유의사항

- 학업계획서는 충실히 작성해야 하며 내용이 없거나 부실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
- \* 학업계획서는 1,00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함  
2,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추진 계획을 3가지 이상의 항목으로 제시(1,00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함
-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수혜자는 학기종료시 학업결과보고서(불입 평가) 작성 양식 참조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다음학기 우정장학(학업장려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됨  
\* 결과보고서(불입 양식첨부) 제출 기한은 2017. 12. 29.(금) 까지
- 중도 휴학 시 수혜자는 우정장학(학업장려금)을 반환해야 함
- 우정장학(학업장려금) 한 학기 지급액(60만원)을 상회하는 생활비 보조 성격의 장학(학업장려비) 중복 수혜 불가

### 9. 문의 :

학생지원처 장학팀(02-961-0045~0046)



## 보도

## “선배들이 합격한 모습, 뿌듯해요” CPA 합격 73명…대학 순위 4위

안나연 기자 yeonnaahn@knu.ac.kr

올해 우리학교는 73명의 CPA 합격자를 배출하며 합격자 수를 바탕으로 한 전국 대학 순위에서 4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합격자 58명에 비해 15명 상승한 결과이다. 우리학교 합격자 수는 최종 합격자 915명 중 7.9%에 달한다. 73명 중 전공별 합격자 수는 회계·세무학과가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영학과가 27명, 경제학과가 6명, 행정학과가 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무역학과, 영문학과, 호텔경영학과, 조리서비스경영학과, 건축공학과도 각각 1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비약적으로 늘어난 합격자 수에 대해 공인회계사 고시반 청현재를 담당하는 황문호(회계·세무학) 지도교수는 학생들 간의 연대를 그 비결로 밝혔다. 황 교수는 “청현재에 모이는 113명은 학번도, 학과도 상이하지만 목표는 공인회계사로 똑같다”며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끼리 경쟁하기보단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연대는 청현재만의 ‘멘토-멘티 시스템’을 통해 공고해진다.

주로 ‘멘토-멘티’는 ‘작년 합격자-올해 시험 준비생’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현재 같이 공부하는 사람 중 실력의 차이가 있다면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을 도와주는 과정이다. 황 교수는 “멘토-멘티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후배에게도 흐믓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준다”고 말하며 멘토-멘티 관계를 통한 선순환을 강조했다.



합격자를 위한 축하연이 9월 1일 오비스홀에서 열렸다

지난 1일 7시 오비스홀 151호에서는 합격자 73명을 위한 축하연이 열렸다. 축하연은 참석한 교수진과 선배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2017 공인회계사 합격현황 및 합격자 소개, 교수 및 선배의 격려의 말 그리고 만찬과 합격자 소감 발표 순서로 진행됐다. 특이한 점은 44기부터 51기까지의 공인회계사 선배 57명과 교수진 9명뿐만 아니라 현재 청현재에서 공부하는 수험생 97명도 초대한 것이다. 황 교수는 “같이 공부한 선배 혹은 동기가 합격했으니 축하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청현재 속 선후배 간의 우애를 강조했다. 현재 청현재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 중 한명인 김장한(경영학 2012) 씨는 “같이 공부했던 선배들이 합격한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고 밝히며 “내년에는 나도 저 자리에 앉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다.

합격자인 이지환(경영학 2011) 씨는 “후배들의 길을 터주는 회계사 선배가 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 “우리학교의 CPA 합격자 수가 점차 높아지며 작년에 5위한 것에 이어 올해는 4위를 했다. 계속 이 상승세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학생인 소정현(호텔경영학 2009) 씨는 학생의 비결을 묻자 “기초부터 정확히 한 것이 핵심”이라며 “아무래도 전공이 회계와 큰 관련이 없다보니 공부를 시작할 때 어려움이 많았다. 그때 기본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오답을 꾸준히 정리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는 공부비법을 말했다. “다른 전공에서 졸업한 뒤 시작해 수험기간이 길었던 만큼 기쁨이 크다”며 합격 소감을 밝혔다.

## “교양학점 결코 많지 않다” 객원교수 신분안정·처우개선 뜻도

## 후마 신임 학장 인터뷰 - ① 서울

설지연 기자 jy0622@knu.ac.kr

【서울】 지난 24일 서울캠 후마니타스 칼리지(후마) 학장으로 교양연구소장이었던 이영준 교수가 임명됐다. 이 학장은 “국내 최고에서 세계 최고로 도약할 것”이라며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후마의 문제점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우선 이 학장은 중핵교과의 많은 강의 인원에 대해 지적했다. 중핵교과의 강의 인원은 45명으로 토론수업을 진행하기에 많은 인원이라는 것이다. 이 학장은 이에 대해 “35명까지 인원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교양 강좌 수 증설에 있어서 이 학장은 “공간 문제만 해결된다면 강좌 수 증설에 매우 긍정적이다”라며 “청운관에서 주로 교양 강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단과대 내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일전에 논란이 됐던 후마 중핵교과 교수회의와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보였다. 지난 6월, 후마 중핵교과 교수회의에서 객원교수의 신분안정화와 7년간 동결됐던 임금인상, 시간강사의 점진적 객원교수로의 신분전환을 주장하는 대자보를 불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둘 사이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 학장은 “교수회의의 적절한 타협점을 찾으려는 중이다”라며 “의사소통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을 뿐이지, 학교와 교수회의 모두 지향하는 바는 같다”라고 말하며 객원교수들의 신분안정화와 처우개선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 기초체력인 교양 탄탄히 해야

이 학장은 교양 학점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우리학교의 현재 교양 학점은 33학점으로 서울대(36학점), 연세대(36학점), 고려대(37학점)에 비해 결코 많지 않는 것이다. 이 학장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소양을 길러야 한다”라며 “사람들과 어울려 소통하는 법을 배



서울캠 후마니타스 칼리지 이영준 학장이 새로 취임했다

(사진 = 설지연 기자)

우고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교양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덧붙여 이 학장은 교양을 ‘기초체력’에 비유하기도 했다. 모든 운동을 하기 전에 기초체력을 키우고, 그 종목에 맞는 기술들을 배운다. 교양도 마찬가지다. 학생들 모두 배우는 전공은 다르지만 기초체력인 ‘교양 과목’을 탄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학장은 “이제는 살면서 여러 번 직업을 바꾸는 시대가 왔다”라며 “교양 과목을 통해 기본적인 소양을 쌓아야 여러 직업을 가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지금 후마와의 차별점에 대해 이 학장은 ‘교육에서 학습으로 전환’을 내세웠다. 이는 교수가 앞에서 강의를 하고 학생은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업이 아니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찾아 공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후마의 중핵교과들이 강의실 내에서 교재를 토대로 진행되는 수업이었다면, 이제는 학생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이 학장은 “문명탐방 프로그램에 대해 구상 중이다”라며 “4대문명의 발상지에 학생들이 가서 책을 통해 배워 내용을 직접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루어가는 수업에 대해 아직은 익숙하지 않다면 이 학장은 “교양과목은 학생들을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수업을 싫어하지 않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 여성학·심리학 강좌 개설

세부적으로 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2018년 1학기부터 여성학과 심리학 관련 교양 강좌가 개설될 예정이다. 이는 학생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이 원했던 교양 분야의 강좌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 학장은 “실제로 중핵 교과 교재 역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편되고 있다”라며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말해준다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생각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학장으로서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에 대해 이 학장은 “우리학교는 ‘세계 평화의 날’을 만든 만큼 다른 학교가 생각하지 않았던 인문학적 가치를 오래전부터 고민 해왔다”라면서 “그러니 후마가 세계적인 교양 프로그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용기를 가져도 된다. 학생 개개인 또한 자기 자신에 한계를 두지 말고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했다.

한국어 · 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외국어강좌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접수기간		■ 정규 외국어강좌(6주) : 2017.09.11.(월) ~ 10.20.(금) ■ 접수기간 : 2017.08.14.(월) ~ 2017.09.08.(금)	Level Test	■ 영어회화 : 09.05(화), 09.06(수) 17:30 ■ 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회화 : 09.05(화) 17:15
강의시간표				
영어회화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30~19:50 (월, 수, 목)	
	레벨	Beginning / Intermediate / High-Intermediate / Advanced		
영어 레벨업	시간	오전반 07:45~08:45 (월~목)	오후반 18:00~20:00 (화)	오후반 18:30~20:00 (화)
	수강료	Ted Talk	Business Special Lecture Screen English	Academic Writing Workshop
일본어	시간	150,000원	120,000원	90,000원
	레벨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고급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고급
중국어	시간	150,000원		
	레벨	초급1/ 초급2/ 초급3/ 중급1/ 중급2/ 고급	초급2/ 초급3/ 고급1	초급1/ 중급1/ 고급2
스페인어	시간	150,000원		
	레벨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고급	중급2	
프랑스어	시간	120,000원		
	레벨	초급1	초급2	
독일어	시간	150,000원		
	레벨	초급1	초급2	초급3
베트남어	시간	120,000원		
	레벨	초급1	초급2	
이탈리아어	시간	150,000원		
	레벨	초급1	초급2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서울) Tel. 02) 961-0081~82 http://www.iie.ac.kr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연구력 강화 워크샵		
일정 : 2017.9.6 (수) ~ 9.14 (목)		
1주차 : 연구 트렌드 분석과 논문 토고 전략 세우기		
2주차 : 논문작성을 위한 학술DB 교육		
RefWorks(서지관리), Turnitin(표절예방), KSDC/ICPSR(통계) 등		
[상세일정]		
1주차 : 연구 트렌드 분석과 논문 토고 전략 세우기	2017.9.6.(수)	2017.9.7.(목)
[14:00~15:30] Scopus 활용	산행연구 조사와 논문 토고 모임	[15:00~16:30] 2017 해외 학술지 논문 토고 세미나
ProQuest	Taylor & Francis 데이터 토고 강연	InCites 활용
2017.9.8.(금)	[14:00~15:30] Turnitin 교육	연구정책역학 항상화 및 실무자작성 교육
	표정학원 프로그램	Taylor & Francis 데이터 토고 강연
	장소 : 중앙도서관 1층 정보교육실	장소 : 법학관 3층 대강의실(301호)
		장소 : 중앙도서관 1층 정보교육실
2주차 : 논문 작성을 위한 학술DB 교육		
2017.9.12.(화)	2017.9.13.(수)	2017.9.14.(목)
[14:00~15:30] ProQuest	[14:00~15:30] Turnitin 교육	[14:00~15:30] KSDC/ICPSR
해외 학술논문, 학술논문, EBook 이용법	표정학원 프로그램	통계 이용 및 실무자작성 교육
장소 : 중앙도서관 1층 정보교육실	장소 : 중앙도서관 1층 정보교육실	장소 : 중앙도서관 1층 정보교육실
[15:00~16:30] RefWorks 교육	[15:00~16:30] Academic Video Online	[16:00~17:00] 전주제 분야 연구/학술을 비디오자료로 소개
서지관리 및 고급문헌 작성법	장소 : 중앙도서관 1층 정보교육실	장소 : 중앙도서관 1층 정보교육실
장소 : 중앙도서관 1층 정보교육실		
※ 신청방법 : 중앙도서관(서울)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신청 khs.knu.ac.kr 접속, 로그인 후 Research → 도서관 이용교육 신청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연구력 강화 워크샵

일정 : 2017.9.6 (수) ~ 9.14 (목)

1주차 : 연구 트렌드 분석과 논문 토고 전략 세우기

2주차 : 논문작성을 위한 학술DB 교육

RefWorks(서지관리), Turnitin(표절예방), KSDC/ICPSR(통계) 등

[상세일정]

1주차 : 연구 트렌드 분석과 논문 토고 전략 세우기

2017.9.6.(수) 2017.9.7.(목) 2017.9.8.(금)

[14:00~15:30] Scopus 활용

2017 해외 학술지 논문 토고 세미나

Taylor & Francis 데이터 토고 강연

[15:00~16:30] Turnitin 교육

KSDC/ICPSR

통계 이용 및 실무자작성 교육

Taylor & Francis 데이터 토고 강연

[14:00~15:30] ProQuest

표정학원 프로그램

통계 이용 및 실무자작성 교육

장소 : 중앙도서관 1층 정보교육실

[15:00~16:30] RefWorks 교육

서지관리 및 고급문헌 작성법

장소 : 중앙도서관 1층 정보교육실

[16:00~17:00] Academic Video Online

전주제 분야 연구/학술을 비디오자료로 소개

장소 : 중앙도서관 1층 정보교육실

\* 신청방법 : 중앙도서관(서울)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신청  
khs.knu.ac.kr 접속, 로그인 후 Research → 도서관 이용교육 신청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주제별 정보

주제별 정보

# 탈(脫) 탈원전

전문가 칼럼



허균영  
원자력공학 교수

한국이 넘으신 필자의 어머니께 전화로 안부를 여쭙는다. 뜻밖에 말씀을 하신다. ‘요즘 신고리 5, 6호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명색이 자식이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하고 있으니 원자력 이야기가 눈에 좀 더 밟히시리라 생각은 된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 때에도 그저 괜찮은지만 물으신 것을 떠올리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원자력 정국(政局)’임에 틀림없다.

지난 대선 때를 돌아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사실상 모든 후보가 원자력을 ‘나쁜 놈’으로 낙인찍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우리나라의 최신형 원자력발전소(원전)를 수출했다는 뉴스 이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납품비리, 사고은폐, 최근 경주 지진, 절묘한 태이밍에 개봉된 영화까지 일련의 사건들은 탈원전을 향한 일종의 전조였다. 원전 인근 도시 주민의 불안감은 고조됐고 정치인에게 탈원전 공약은 상당히 매력적인 주제일 수밖에 없었다. 이후의 상황은 바로 우리 어머니도 아시는 그 상황이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1호 원전인 고리원전의 작별식 자리에서 전격 탈원전 의지를 밝힌다. 동시에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 사업을 중지시켰으나, 잔반여론이 비등하자 건설 중지 최종 결정은 시민참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방송, 신문 등을 통해서 10월 20일까지 활동할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았을 것이다.

탈원전의 찬반논리는 그 자체로 백과사전을 쓸 수 있을 정도다. 원전 하나만 가지고도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 역사를 재현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양측에서 정밀 ‘어마어마’한 분량의 자료를 쏟아내고 있다. 탈원전은 원자력 문제이자 에너지 현안이며, 국가 안보와 관련되어 있고, 국제 정세도 읽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



원자력은 지금 당장 퇴출을 결정할 만큼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나쁘지도 않으며 쓸 만한 에너지원이라 확신한다. (사진=중앙일보DB)

이다. 이 기회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한다. 그 중요성과 과급 효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는 ‘그들만의 리그’ 이상으로 부상한 적이 없었다. 현재의 상황은 국민들이 에너지문제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국민적 관심사를 높였다는 점 이외에 현재의 상황은 아쉽게도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아 보인다. 가장 큰 어려움은 갈등구조가 더욱 세분화되어 문제 해결이 요원해졌다는 점이다.

이전의 논의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구도였다면, 지금은 정치권의 대립은 물론이고 지역간, 세대간, 직군(職群) 간, 전문가와 시민, 특히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대치로도 분화되고 있다.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사람들은 어느 한 편에 설 수 밖에 없다. 일단 한 쪽에 서면 그 때부터는 진영논리가 강화되고 고착된다.

원자력에 대한 안전성, 경제성, 환경친화성 등 많은 이슈에 대한 설명에 있어 객관성과 합리성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다. 필자도 해당분야에서 일을 하는 만큼 원자력의 장점과 단점을 평균 이상으로 알고 있다. 그러

나 자리에 따라 원자력의 명암에 대한 설명이 균형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매우 명확한 점이 있는가 하면 그저 바람인 점도 있으나, 설명하다보면 상세히 구분되지 않는다.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가 원인까지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정말 세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도 있다. 전망치는 과거의 추이를 이용한 미래 시점의 외삽일 뿐이다. 미래가 전망대로 실현되는 것이 오히려 신기한 것이다. 여기에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순간 탈원전의 득실에 대한 논의는 네버엔딩이 될 공산이 크다.

이러한 현실에서 필자가 물려서고 싶지 않은 마지막은 탈원전, 즉 원전으로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전소 건설의 완급은 조정될 수 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 하에서의 원전 감소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원전 조정은 다른 것이다. 필자의 관점에서는 ‘서서히’라는 수식어를 탈원전 정책 앞에 붙이기 어려워 보인다. 탈원전을 한다면 우선 해당분야로 인력이 유입되지 않을 것이다. 가라앉는 배에 올라타고 싶을까? 교육과 산업도 마찬가지다. 좋은 인력과 양질의 부품이 공급되지 않으면 원전은

사상누각이 된다. 상황이 생겼을 때에 해소할 방법도 없다. 원자력계는 규탄 당하고 모든 원전이 정지된다. 신규원전 도입은 불가능하다. 생각보다 빠르게 밀어닥친 전력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우리나라는 어떤 운명이 될까?

원자력은 지금 당장 퇴출을 결정할 만큼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나쁘지도 않으며 쓸 만한 에너지원이라 확신한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느닷없이 에너지 수급이 어려워질 여지는 산적하다.

이럴수록 다양한 옵션을 갖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유리하다. 경쟁을 통해 장점을 향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몰라서 못 하는 것과 알지만 안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차고 포고하고 장기를 두는 우리나라를 착한 나라라고 칭찬할지는 몰라도 현명한 나라라고 할 사람은 없다.

에너지 현안에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개론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원래 부여된 대로 제대로만 작동되면 이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마련하다. 책임을 지고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곳에서 정작 힘을 쏟아 부어야 할 일은 뒷전이 아닌지 걱정이다.

## 참여마당

안덕훈  
(한국어학 2017)



## 낡은 병원같던 ‘우정원’

하루를 끝내고 친구들과 기숙사에 삼삼오오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기숙사를 배경으로 한 시트콤 ‘논스톱’에서 자주 등장하던 모습이다. 어렸을 적 이 청춘 시트콤을 시청하던 필자는 ‘저런 모습이 바로 대학생활이구나, 기숙사 생활이구나’라는 로망을 꿈꿔왔다.

올해 그렇게 꿈에 그리던 대학에 합격했다. 그것도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경희대학교에 말이다. 기숙사를 신청하게 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할지 모르겠다. 꿈꿔온 대학생활의 모습 한 페이지는 늘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었으니 말이다. 그렇게 우정원에 입사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었다. 우정원의 첫인상은 지저분하고 어둡고 칙칙했다. 그러나 일말의 희망을 놓지 않았다. 방을 배정받고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오르며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복도로 들어선 순간 마주한 오래된 방화문과 방문은 위압감마저 들 정도로 삭막했다. 설치한지 10년은 족히 돼 보였다. 화장실 역시 좁고 깁찝했다.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공간이 아니었다. 외딴 곳에 우두커니 있는 오래된 청소년 수련원이 연상됐다.

바다재와 천장은 낡은 병원을 연상시켰고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렇게 밤이 찾아왔다. 기숙사의 어둡고 으스스한 분위기는 극대화됐다. ‘아! 못 살겠다.’ 이런 환경이 대학생활에 도움이 될 리 없다는 판단에 퇴사를 마음먹었다.

## 검증한 기숙사에서 벗어나자

안정감과 편안함이 느껴졌다

자취를 시작하면서 더욱 확실해졌다. ‘못 살겠다’는 감정은 실질적인 불편함과 불안감에서 발생했다는 걸. 지금 살고 있는 자취방이 엄청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숙사생활 내내 느꼈던 우울함은 사라졌다. 기숙사가 주는 우울함은 강의가 끝난 후 기숙사로 돌아가는 것을 꺼리게 했다. 그래서 밖으로 내돌았다. 하지만 자취를 하면서는 곧장 돌아왔다. 안정감과 편안함이 느껴졌다.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첨언하자면 기숙사비와 지금 살고 있는 자취방의 월세는 별반 다르지 않다.

얼마 전 우리학교 학생들 사이에 우정원 관련 기사가 화제가 됐다. 진위여부를 떠나 우정원에 대한 문제와 의혹이 커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기숙사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커져가는 동시에 기숙사비 미지 저렴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숙사는 타지에서 온 학생들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편안한 공간, 쉴 수 있는 공간은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다. 기숙사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다.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후배들은 청춘 시트콤의 한 장면 같은 대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런 기숙사를 바란다.

## 대학주보 66기 수습기자 모집

- 모집 대상
  - 우리학교 학부 1학년 재학생
  - 3학기 이상 가능한 자

### • 전형 일정

- 지원 기간 : 2017년 9월 1일~9월 11일
- 면접 일정 : 12일(서울캠퍼스), 13일(국제캠퍼스)
-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 통보

### • 전형 방법

- 1차 입사지원서(지원기간 중 제출)
- 면접일 당일 2차 필기시험 및 면접
- 필기시험 : 대학주보 특정 기사에 관한 논평

### • 접수 방법

- 홈페이지([media.knu.ac.kr/khunews](http://media.knu.ac.kr/khunews))에서 입사지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업로드 제출

### • 주요 업무

- 학내뉴스 아이템 발제 및 취재
- 온라인 혹은 지면발행 기사작성

### • 혜택

- 소정의 취재비 및 원고료 지급
- 소정의 장학금 지급

### • 기타 궁금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961-0095(서울캠퍼스 편집실), 031-201-3232(국제캠퍼스 편집실)
- 이메일 : khunews@knu.ac.kr
- 휴대전화 : 010-3005-7798(편집장)



## 해외취재

# 캠퍼스타운과 COC 사업, 지역공헌을 대하는 다른 시선

(서울시)

&lt;일본&gt;

## 일본 대학 지역공헌

이수형 기자 dltbd112@khu.ac.kr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서 모집된 계획안들이 ‘청년창업 지원계획’에 그치면서 이 사업에 따른 대학의 지역사회공헌은 미비할 전망이다. 한편, 일본은 일찍이 COC(Center Of Community) 사업을 통해 대학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발에 나서고 있어 캠퍼스타운 지원 사업의 선례로 주목할 만하다.

서울시의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대학가 청년창업을 지원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활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년일자리 감소 등 청년문제와 학령인구감소, 재정사정악화 등 대학들이 당면한 문제,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특색을 잊은 대학가 상권의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 사업은 2025년까지 시 예산 1,520억 원이 투입되도록 계획된 대규모 대학지원 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5월 1차 지원대학 선정을 마친 캠퍼스타운 지원사업은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이름을 바꿔야 할 지경이다. 캠퍼스타운 지원사업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대학가 상권활성화, 두 목표가 뒤엉켜 각 대학들의 사업계획안을 청년창업으로 귀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캠퍼스타운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

정된 13개 대학 중 3곳을 뺀 나머지는 모두 중심계획으로 창업 관련 강의개설 혹은 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획일화된 창업지원안을 내놨다. 창업지원안 외의 계획안은 지역 홍보 행사 개최, 홍보영상 제작 등 굳이 대학이 도맡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업에 그친다. 우리대학의 중심사업은 여러 청년들이 한 접포에서 시간대 별로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공유상점’을 설치하는 것이다.

13개 대학 중 서울여자간호대와 성공회대, 그리고 케이씨대만이 지역사회공헌에 나섰다. 성공회대는 중국교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영등포구 지역특성을 고려해 다문화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활동 지원에 나섰다. 다문화 청소년들의 경력개발부터 일자리 제공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여자간호대는 간호대학의 의료역량을 살려 지역의 치매예방에 집중한다. 동시에 액티브 시니어 주민 전문강사를 양성한다고 사업계획서에 밝혔다. 케이씨대는 강서구에 융복합 R&D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라는 것을 근거로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습 컨설팅을 제공한다.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은 2013년부터 대학의 사회공헌 지원사업인 COC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에서 2000년대 초반 지방분권일괄법 시행 이후 지역 자생력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는 대학과의 협력을 꾀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COC 사업을 통해 2013년 지역재생, 지역활성화 계획안을 전국 대학에 공모했다. 선정 대학에는 최대 5년간, 연간 최대 5,800만 엔을 지원하고 있다. 요코

대학명	핵심목표	사업명
경희대학교	창업육성	회기동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광운대학교	창업육성	지역공존·공감 창조경제 캠퍼스타운 조성(SNK-VITAMIN센터)
동국대학교	창업육성	남산골 창업·문화, 공생·공감·공유
동양미래대학교	창업육성	Re.Start Guro
서울대학교	창업육성	서울대 스타트업캠퍼스 “녹두.zip”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지역협력	지역밀착형 Well-aging 프로젝트
성공회대학교	지역협력	“마을은 대학으로, 대학은 마을로” 구로마을 대학
성균관대학교	창업육성	성균관대 청년 창업,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사업
숙명여자대학교	창업육성	전통과 문화로 미래를 창조하는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인덕대학교	창업육성	청년창업거리 1·7·3 프로젝트
케이씨(KC)대학교	지역협력	강서구-KC대학 창의인재육성사업
한성대학교	문화특성화	한성성과 캠퍼스타운
홍익대학교	창업육성	상상력을 디자인하는 홍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당시 일본의 대학들도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의 증가 등,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이 겪고 있는 것과 유사한 어려움에 처해 존재감 향상의 계기가 필요했다. 지역사회와 대학의 필요가 맞아떨어지면서 2000년 이후 지역사회와 대학의 협정체결 건수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 골자는 ‘지역과 대학의 연계로 마을개발을 추진하고, 실천적인 사회인을 육성하자’는 것으로, 서울시의 캠퍼스타운 목표와 일견 유사하다. 서울시의 사업 목표에 ‘청년 일자리 창출’이 있다는 점이 유일한 차이점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COC 사업을 통해 2013년 지역재생, 지역활성화 계획안을 전국 대학에 공모했다. 선정 대학에는 최대 5년간, 연간 최대 5,800만 엔을 지원하고 있다. 요코

하마 시립대는 2013년 선정된 첫 해 15개 지역공헌 관련 강의를 개설했으며 2014년 102개 강의, 올해는 170개 가량의 강의를 운영 중이다. 이 중 특히 ‘마을 만들기’ 트랙은 우리학교 시민교육과 유사한 형태로, 지역사회 과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을 만들기’ 담당 스즈키 노부하루 교수는 ‘마을 만들기’ 수업 결과의 성공적인 예시로 ‘코가네초 살리기’ 프로젝트를 든다. 코가네초 지역은 한때 사건사고가 빈번한 집 창촌으로 유명했고 지금은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있다. 요코타 케이스케 씨를 비롯한 학생들은 코가네초 지역의 지역 분위기를 해치는 외관을 가진 빈 집을 고치는 방식으로 환경개선을 시도했다고 한다. 스즈키 교수는 “학생의 아이디어나 연구결과가 시의 정책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자랑했다.

요코타 씨는 지역활동가가 되기 위해 현재 요코하마 시립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다. 요코타 씨는 “이제는 활동을 하고 있으면 지역주민들이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신다”며 “언제는 틈을 쓰고 있으니 한 주민분이 전기톱을 들고 와 일을 다해버리시더라”고 말했다. 요코타 씨는 지역뉴스를 전하는 웹 라디오를 1년 가량 진행했던 경험과 지역 축제에서 벤들이 이벤트를 했던 것 등

을 늘어놓으며 “주민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는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요코하마 시립대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익스텐션 강의’로 명명해 진행한다. 지난 해 기준 140개 강좌가 열려 1년 동안 약 2만 명의 주민들을 가르쳤다. 또한, 지역관련 연구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나미끼 거점을 설치해 요코하마 변두리 지역을 개발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스즈키 교수는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대고 있는 면이 크다”며 “지역공헌은 대학의 의무다”라고 말한다.

실제로 일본에선 2006년도, 교육기본법에 ‘대학은 교육·연구 성과를 널리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추가됐다. 공식적으로 ‘지역공헌’이 대학의 책무에 포함될 정도로 일본 대학들 사이에 지역공헌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스즈키 교수에 따르면 익스텐션 강의 역시 일본 대학가에선 보편적이다. 스즈키 교수는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단이 캠퍼스타운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내게 자문을 구한 적이 있다”며 “서울시의 질문들이 모두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사안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대학은 지역사회에  
기대고 있는 면이 크다.  
지역공헌은 대학의 의무다.



요코하마 시립대 스즈키 노부하루 교수(왼쪽), 나미끼 거점(가운데), 나미끼 거점 담당 미와 노리에 교수(오른쪽)

## 지역 특징 맞춘 사회실험

## 일본 대학 지역공헌

이수형 기자 dltbd112@khu.ac.kr

인구 370만 명의 대도시인 요코하마시에는 1970년대 대규모 간척으로 만든 공업·주거지역이 곳곳에 있다. 그중 한 곳이 가나자와 나미끼 지구다. 당시 이주해 온 공업인력이 고령화되자 요코하마 주변은 초고령화와 함께 인구감소로 흥역을 앓는데, 70년대에 공업인력이 이주해 온 후 인구유입 요인이 없었던 탓이다.

요코하마 시립대는 그곳에서 COC사업의 일환으로 ‘위성거점 사업’이라 불리는 사회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위성거점 사업이란, 대학이 낙후 지역에 거점건물을 두고 지역재생에 관한 실험·연구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공업노동자들의 대규모 이주지

였던 나미끼는 이젠 평균나이 65세의 한촌이다. 나미끼의 상점가입구에 자리한 나미끼 거점은 요코하마 시립대의 지역공헌활동 거점공간이다.

나미끼 거점이 목표하는 것은 나미끼를 노인친화 마을로 만드는 것이다. 거점을 운영하는 미와 노리에 교수는 “젊은 사람을 마을로 돌아오게 하기 보단, 고령화를 얼마나 잘 진행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다. 노령에 접어들어서도 사회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가 가득한 마을을, 요코

하마 대학은 노인친화 마을로 규정한다. 요코하마 시립대는 늙은 마을 나미끼에서 ‘나미끼 거점’을 운영한다. 미와 교수는 “거점을 개설한 것은 대학이지만, 거점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주민이다”라고 말한다. 주민들이 주도해 공간을 꾸

이고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한 주민의 ‘모임장소가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으로 얼마 전까지 카페를 운영한 나미끼 거점에는 주방 기기가 정리되지 않았다. 라틴하프를 캠핑 캠핑 줄 아는 주민이 라틴하프 교실을 열기도 했고, ‘후지쯔’에 근무했던 주민이 컴퓨터 관련 상담을 하기도 했다. 주민참여로 거점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나미끼 거점 ‘액티브 시니어’ 실험의 요지다. 가끔은 주민들이 문을 열고 개시한다는 나미끼 거점에서 미와 교수와 주민들은 실험을 계속해 나간다.

나미끼 거점의 최근 생긴 목표는 ‘마을보육’의 실현이다. 미와 교수는 “마을에 학기족이 늘어나 노인 부양도 어렵지만 육아에 곤란을 겪는 주민들이 많다”며 ‘마을보육’ 연구에 나섰다. 마을이 공동으로 아이들을 키우자는 것이다. 미와 교수는 공공보육원 등 관련 인프라

확대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나미끼 거점 한 편에 아이들 놀이공간이 있는 것은 물론이다.

나미끼 거점은 요코하마 시립대 의학부와 협력해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마을 커뮤니티의 모임장소를 제공한다. 때로는 요코하마 시립대의 강의실이 되기도 한다. 요코하마 시립대의 지역활동가 양성 트랙인 ‘마을 만들기’ 수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은 나미끼 거점 인근의 빈 방에서 3박 4일 지내며 마을을 연구한다. 지난 학기에는 학생들이 ‘녹지를 휴식공간으로 개발하자’, ‘공업단지와 주거지를 가르는 산책지를 가꿔 교통로를 개발하자’ 등의 제안을 했다.

교수는 지역 노령화를 연구하고, 학생들은 공부하고, 주민들은 참여한다. 나미끼 거점은 대학과 마을을 잇는 ‘거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